

2020년도 제2회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1481호
2.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3. 제출일자 : 2020년 5월 4일
4. 회부일자 : 2020년 5월 4일

II.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개요

1. 제안이유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피해 극복, 민생안정 지원 등을 위해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하는 것임.

2.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규모

-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42조 4,139억 8천만원으로,

기정예산 40조 7,401억 8천만원에

대비하여 4.1%(1조 6,738억원) 증가하였음.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0조 3,403억 7천 8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2%(2조 3,063억 8천 7백만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2조 736억 2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0%(6,325억 8천 6백만원) 감소하였음.

<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기정대비증감	%
계	42,413,980	40,740,180	1,673,800	4.1
일 반 회 계	30,340,378	28,033,991	2,306,387	8.2
특 별 회 계	12,073,602	12,706,188	△632,586	△5.0

3.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92억 4천 2백만원 대비 30억원 증가한 322억 4천 2백만원으로, 특수고용·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노동자 지원 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임.
- 세출예산은 당초 2,703억 3천 7백만원에서 140.9%(3,809억 5천 1백만원) 증가한 6,512억 8천 8백만원으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규모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기정대비증감	%
계		651,288	270,337	380,951	140.9
일반회계	계	642,321	260,310	382,011	146.8
	행정운영경비	476	476	-	-
	재 무 활 동	69,775	69,775	-	-
	사 업 비	572,070	190,059	382,011	201.0
도시개발 특별회계	계	8,967	10,027	△1,060	△10.6
	사 업 비	8,967	10,027	△1,060	△10.6

- 특수고용·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노동자 지원(신규) 91억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500억원,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신규) 3,255억 8천 7백만원 등
총 3개 사업에서 3,846억 8천 7백만원이 증액되었고,

-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활성화 5억 5천 5백만원,
노동존중문화 확산 2천 5백만원,
서울형 좋은 일자리모델 확산 프로젝트 2억 2천만원,
서울시 강북노동자복지관 확충 10억 6천만원,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9억원,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2억 2천 6백만원,
소상공인 결제편의 제공사업(폐지) 5억원,
사회적경제 인식 제고 및 성과관리 2억 5천만원 등
총 8개 사업에서 37억 3천 6백만원이 감액되었음.

Ⅲ. 검토보고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1.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

가. 편성배경 및 규모

- 코로나19의 확산 여파로 민생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되고 있으며, 생산·수출·소비·고용 등 경제 전 부문의 침체가 본격화되고 있음.
- 올해 1분기 실질 GDP는 전기대비 $\Delta 1.4\%$ 역성장하였고, 특히 민간소비가 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인 $\Delta 6.4\%$ 감소해¹⁾ 내수와 민생부문에 큰 충격이 우려되고 있음.

1) 한국은행, 2020년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2020.4.23.)

- 특히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취약경제계층들은 이러한 경제위기상황에서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음.
 - 서울지역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BSI)²⁾는 3월 기준, 29.4p로 가장 낮은 수준(전월 대비 △11.4p, 전년 동월 대비 △46.8p)을 기록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³⁾.
 - 소상공인연합회의 실태조사⁴⁾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소상공인의 매출액이 전년 동월대비 대폭 감소(△50% 이상 28%, △80% 이상 20.8%, △90% 이상 17.1%)한 것으로 나타남.
- 이에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소득을 보장하고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12조 2천억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음(2020.4.29.).
- 서울시는 정부의 추경에 대응해,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기정예산 대비 1조 6,738억원 증액(4.1%)된 42조 4,139억 8천만원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음.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30% 분담(2조 1,063억원)하고, 민생경제 회복 추진동력 마련을 위해 자영업자 생존자금(3,256억원) 지원, 코로나19

2) 체감경기지수는 기업체가 느끼는 체감경기를 나타내며,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낮으면 경기악화를 예상하는 기업이 호전될 것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음을 의미하고, 100보다 높으면 경기 호전을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

3)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코로나19 사태가 서울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소상공인 및 관광업 대응 방안(2020.4.6.)

4) 소상공인연합회, ‘코로나19’ 사태 관련 소상공인 경영상황 실태조사 결과보고서(2020.4.)

피해업종 지원(344억원) 등 총 2조 8,329억원을 증액하고, 세출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1조 1,591억원을 감액하였음.

<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 >

세출규모 : 2조 8,329억원		재원조달 : 2조 8,329억원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2조 1,063억원	▶ 국고보조금	1조 7,329억원
▶ 자영업자 생존자금	3,256억원	▶ 순세계잉여금 등	5,830억원
▶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500억원	▶ 기금 예수금	500억원
▶ 코로나19 피해업종 지원	344억원	▶ 지방채	△3,468억원
▶ 고용보험 사각지대노동자 지원	91억원	▶ 회계간전입금	△3,453억원
▶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74억원	▶ 세출사업 구조조정	1조 1,591억원
▶ 안심호흡기 전문센터 (보라매병원 내)	1.8억원		
▶ 자치구 조정교부금	3,000억원		

※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2,500억원 별도

나.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내용

(1) 세 입

-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총 322억 4천 2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0억원이 국고보조금으로 증액되었음.
 - 증액분은 고용노동부의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 중 특수고용·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노동자 지원을 위한 매칭 사업비가 교부된 것임.

- 이번 추경안의 세입예산은 부정확한 세입 추계나 결산 착오가 아닌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국비 매칭 사업에 따른 불가피한 증액으로 볼 수 있음.

(2) 세 출

-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세출예산은 6,512억 8천 8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809억 5천 1백만원이 증액(140.9%)되었음.
 - 이 중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특수고용·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노동자 지원 등 3개 사업에서 3,846억 8천 7백만원이 증액되었음.
 - 반면,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활성화 지원, 우리동네 가게 아트테리어, 사회적경제 인식 제고 및 성과관리 등 총 8개 사업에서 37억 3천 6백만원이 세출조정을 통해 감액되었음.

<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노동민생정책관 총 예산	(x27,489) 651,288	(x24,489) 270,337	(x3,000) 380,951
총 11개 사업	(x3,000) 411,836	(x-) 30,885	(x3,000) 380,951
특수고용,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노동자 지원(신규)	(x3,000) 9,100	(x-) -	(x3,000) 9,100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62,665	12,665	50,000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신규)	325,587	-	325,587

사업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활성화 지원	6,981	7,536	△555
노동존중문화 확산	610	635	△25
서울형 좋은 일자리 모델 확산 프로젝트	150	370	△220
서울시 강북노동자복지관 확충	2,410	3,470	△1,060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2,100	3,000	△900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1,913	2,139	△226
소상공인 결제편의 제공사업(폐지)	-	500	△500
사회적경제 인식 제고 및 성과관리	320	570	△250

- 이들 사업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사회·경제적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긴급한 대응이라는 점에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에 적합한지(적합성), 본 예산 편성·심사 당시 예측할 수 없었는지(예측불가능성), 해당연도 내에 집행이 가능한지(연내 집행가능성), 2021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지(시급성) 등은 종합적으로 검토해 심사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서울시는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경제회복 대책의 일환으로 1월 발행한 ‘서울사랑상품권’의 추가할인(기존 10%→15%, 5%캐시백) 정책을 시행한 결과, 열흘만에 500억원, 추가 발행 800억원까지 총 1,300억원의 상품권이 소진되었음.

- 이번 추경에서 누락된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내수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소득을 직접적으로 진작시키는 효과가 있고, 실제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 만족한 결과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향후 추가 예산 편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2. 주요 증액 사업 검토

가. 특수고용,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노동자 지원 (신규, 사업별설명서 19쪽)

-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위기에 직면했으나,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와 프리랜서 등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91억원을 신규 편성함.

< 특수고용,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노동자 지원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x3,000) 9,100	(x-) 0	(x3,000) 9,10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54	0	154
사무관리비	46	0	46
사회보장적수혜금	(x3,000) 8,900	(x-) 0	(x3,000) 8,900

-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무급휴직 노동자, 특고·프리랜서 등의 고용·생활안정을 위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의 하나로, 30억원의 국비에 61억원의 시비를 매칭한 것임.
- 특고·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 상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아 휴업 또는 휴직수당의 대상이 되지 않고, 대부분이 비자발적인 실업상태에 놓였으나 별다른 지원 정책이 없었음.

- 서울시는 특고·프리랜서 등 취약노동계층의 생계를 지원하고자 일괄 접수 후 심사를 통해 가구당 50만원을 지원할 계획임.

< 특수고용,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노동자 지원 사업 개요 >

- ▶ 지원내용 : 가구당 50만원, 1개월 지원
- ▶ 지원대상 :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특고·프리랜서 중
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 하위 순 17,800명

※ 자격조건

- ① 소득기준 :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② 자격기준
 - 특고·프리랜서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 노무미제공* 또는 소득감소*가 확인된 자

- * 위촉계약서, 용역계약서, 노무미제공 확인서 등 명칭 불문 특고·프리랜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위기경보 심각 단계 이후 20일 이상 노무미제공
- * 소득이 30% 이상 감소

(A)	(B) ㉠ 또는 ㉡ 중 유리한 것 택 1		감소율 30% 이상 여부 확인(B-A)/B
㉠ '20.3~4월 월 평균소득	㉠ '20.1~2월 월 평균소득	㉡ '19년 월 평균소득	

※ 제외대상

- ① 공고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자
- ② 실업급여 수급이력이 있는자
- ③ 서울형 자영업자 생존자금 수급대상자
- ④ 서울시 코로나19 청년 긴급수당 수급자

- ▶ 신청기간 : '20.5.6. ~ 5.22.(이메일 또는 현장접수)
신청부터 지급까지 4주 이내 처리
- ▶ 소요예산 : 91억원(국비 30억원, 시비 61억원)

- 이 사업은 소득이 불규칙하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노동 계층이 코로나19로 인한 생존 위기상황을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특고·플랫폼노동자·프리랜서에 대한 법적 정의와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규모의 추계가 어려운 상황임.
- 현재 서울시에는 현재 50만명(고용정보원)에서 90만명(통계청)까지의 특고·프리랜서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현재의 예산으로는 중위소득 100% 이하 특고·프리랜서 중 소득하위 순 17,800명에게만 일회성으로 지원하게 됨.

❖ 비정형 노동자 : 50만명 (고용정보원 등) ~ 98만명 (통계청 기준)

<고용정보원> 특고 30만명+플랫폼종사자 13만명+프리랜서 7만명=총 50만명

· 특 고 : 166만 명(전국)×18.2%(전국 대비 서울시 종사자 비율)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고용노동브리프 제88호('19.3.25.))

· 플 랫 폼 : 55만명 × 24.5%(서울비율)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플랫폼노동 규모추산2019)

· 프리랜서 : 전국311만명(서울 7만명) (한국노동패널조사)

<통계청> 전국 취약계층 544만 9천명 중 서울 98만명 (인구비율 18% 적용)

- 따라서 추가적인 예산 확보를 통해 더 많은 특고·프리랜서들에게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임.
- 미포함된 특고·프리랜서에 대해서는 향후 고용노동부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을 신청할 예정임.

< 중위소득 100% 건강보험료 >

(단위 : 원)

가구원수	소득기준(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총 합
1인	1,757,194	46,890	11,340	100,076
2인	2,991,980	100,050	85,837	131,392
3인	3,870,577	129,924	121,735	162,883
4인	4,749,174	160,516	160,865	192,080
5인	5,627,771	189,063	195,462	224,298
6인	6,506,368	220,167	233,499	253,956
7인	7,389,715	248,116	267,395	253,956
8인	8,273,062	276,843	298,842	286,647
9인	9,156,409	311,116	333,411	326,561
10인	10,039,756	343,406	368,522	368,580

나.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사업별설명서 27쪽)

- 코로나19 피해기업과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해 안정적인 신용보증을 지원하고자 이번 추경을 통해 서울신용보증재단에 500억원의 출연금을 추가 편성하였음.

<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1회추경예산 (B)	기정예산	증감 (A-B)
출 연 금	62,665	12,665	9,000	50,000

- 서울시는 소상공인의 경쟁력과 자생력 도모를 위해 정책보증을 지원하고자 매년 서울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에 일정금액을 출연 중임.

- 2020년 본예산 편성 시, 보증정책의 목표 달성과 재단의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적정 운용배수(6.3배)⁵⁾ 유지를 위해 90억원을 출연함.
- 제1회 추가경정예산(2020.3.24.)을 통해 코로나19 피해기업 보증지원 수요 급증에 대응하는 기간제 인력 인건비와 저금리 대환대출을 위한 특별보증재원 등 36억 6천 5백만원의 출연금을 추가 편성하였음.
- 이러한 용자지원 확대 조치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출 급감으로 일부 소상공인은 고정비 지출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어 코로나 특별보증의 확대 필요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 5월 현재 재단의 보증공급 실적은 이러한 실물경제의 위축과 민생 위기와 맞물려 이미 2019년 연간 추진 실적과 유사한 수준으로 폭발적으로 급증하고 있음.

< 최근 2년간 신용보증 공급 및 잔액 현황 >

(4.24. 기준, 단위 : 건, 억원, %)

구 분		2019년 추진실적	2020년		
			연간계획	실 적	달성률
보 증 공 급	건 수	68,556	61,000	64,564	105.84
	금 액	18,780	20,000	20,088	100.44
보 증 잔 액	건 수	211,023	243,000	265,066	-
	금 액	42,377	47,000	59,007	-

5) 보증지원에 따른 부실액 감당을 위한 적정 운용배수(보증잔액 대비 기본재산 비율)로 5~7배를 유지하고 있음.

- 현재의 추세가 이어진다면, 5월말 보증공급은 5조 7천 3백억원, 보증잔액은 약 9조 5천 7백억원 규모로 전망되며, 예상 운용배수는 15.2배에 이르러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최고보증한도(15배)⁶⁾를 초과하게 됨.

< 예상 보증잔액 산출내역 >

(5월말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직접보증	위탁보증	합 계
'19년말 보증잔액 (A)	42,377	-	42,377
'20년 보증공급 (B) [a+b+c+d]	43,263	14,000	57,263
1.1.~4.10. 공급 (a)	8,604	-	8,604
4.10 현재 진행 중 (b)	29,259	-	29,259
*추가진행 보증 (c)	5,400	-	5,400
기업은행 초저금리 (d)	-	14,000	14,000
보증해지 (C)	3,962	-	3,962
'20년 5월말 보증잔액 (A+B-C)			95,678

- * 진행 중 : 코로나(市) 2,517억원 + 코로나(정부) 21,570억원, + 기타 일반 5,172억원
- * 추가진행 : 서울형 골목상권 119 긴급자금 2,000억원 + 코로나 추가 특별자금 1,600억원
+ 서울형 이자비용 절감 대환대출 600억원 + 기타 일반보증 1,200억원
- * 위탁보증 :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관련 보증

6)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9조(보증의 한도) ① 재단의 신용보증 총액의 한도는 재단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移越利益金)의 합계액의 1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5월말 기준 예상 기본재산* : 6,315억원
 - '19년말 6,388억원 + 출연금 603억원 + 수익 653억원 - 비용 1,329억원
- ▶ 5월말 기준 예상 운용배수 : 15.2배(95,678/6,315)
- ▶ 500억원 출연시 예상 운용배수 : 14배
 - 5월말 보증잔액 95,678억원 / 5월말 기본재산 6,815억원 = 14.04

※ 수익(이자 등) 및 비용 항목(대손충당금, 대위변제준비금)은 1년분을 월할 계산

- 이에 서울시는 이번 추경안을 통해 500억원의 출연금을 편성해 채무 보증여력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보증공급을 지원하고자 함.
-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취약경제주체들의 민생안정을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보증지원을 위한 추가 출연이 필요한 상황
이므로, 이번 출연금 확대는 그 필요성과 타당성, 시급성이 인정됨.
- 최근 들어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다소 안정되었지만, 2/4분기에 들어서면서 생산, 수출, 소비, 고용 등 실물경제의 위축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증지원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⁷⁾.
- 그러나 이번 추경을 통해 500억원을 추가 출연한 이후에도 재단의 운용배수는 14배에 달해 여전히 적정운용배수(5~7배)의 2배를 상회하게 되며, 보증사고 발생과 대위변제 등을 감안하여 최소 운용배수를 12배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1,658억원의 예산이 필요함.
- 따라서 안정적인 공공 정책자금을 통해 민생안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재단 출연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지원 확대 정책이 필요할 것임.

7) 7월 이후 운용배수 15배 초과 전망

다.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신규, 사업별설명서 35쪽)

-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기존 융자지원 등의 간접지원을 넘어 영업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직접지원 사업을 신규 시행할 예정임.
- 이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으로의 전출금 3,255억 8천 7백만원을 편성했으며, 재난관리기금 2천 5백억원을 포함해 총 5,755억 8천 7백만원의 생존자금을 지원하게 됨.
 - 이 중 10억 2천 7백만원은 기간제 인력 비용 등 운영비임.

<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기 금 전 출 금	325,587	0	325,587

- 지급대상은 2019년도 연매출 2억원 미만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약 41만 400개소)⁸⁾이며, 이들에게 월 70만원씩 2회에 걸쳐 생존자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세부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음.

8) 서울시 전체 소상공인(67만 개소) 대비 61%, 불건전업종 등 제한업종(10만 개소)을 제외한 소상공인 대비 72% 수준

<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사업 개요 >

- ▶ 지원내용 : 임대료, 제세공과금 등 고정경비 부담 경감을 위해
사업장당 70만원 2개월 지원
- ▶ 지원대상 : '19년도 연매출 2억원 미만 서울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약 41만 400개소)

※ 자격조건

- ① '19년도 연매출 2억원 미만
('19.7.1일 이후 창업자 '19년 연매출 1억원 미만)
- ②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 서울
- 대표자 주소지 관계없이 사업장 소재지 기준 지원
- ③ '20.2.29일(코로나 심각단계 전환 시점의 월 기준) 기준 만 6개월 이상의
운영기간 보유
※ '19.9.1일 이전 창업자
- ④ 지급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중인 소상공인
- '19년도 매출 없는 소상공인 등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업체 지원 제외
- 직원 수 등 소상공인 법정 기준 확인*
- ⑤ 단, 유흥, 사행, 도박 등 용자제한업종 지원 제외

- * 소상공인 : 업종별 일정 매출액 이하의 5인 또는 10인 미만의 사업자
- * 인력 기준 : 5인 미만, 단 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의 경우 10인 미만
- * 업종별 매출액 기준 : 제조업 120억원~ 숙박·음식점업 10억원

- ▶ 신청기간 : '20. 5. ~ '20. 6.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은 6월부터)
- ▶ 소요예산 : 5,755억 8,650만원

○ 서울 소재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700,000원*2개월*410,400개소	= 574,560,000천원
○ 운영비 지원	= 1,026,500천원
- 기간제 근로 인력 지원 2,496,000원*5명*25개구*2개월	= 624,000천원
- 사업 홍보 등 지원 400,000원*2개소*425개동	= 340,000천원
- 컴퓨터 등 사무기기 임차 지원 500,000원*5개*25개구	= 62,500천원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현금지원 방식은 영세 소상공인의 사업장 유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지원방안이 될 수 있음.
- 다만 단순 매출액 기준에 따른 지급방식보다는 매출 감소 등 영업 피해 여부를 지원대상의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코로나19 피해 지원이라는 정책목적에 보다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생존자금 지원 예산 외 10억 2천 7백만원의 운영비를 편성하였는 바, 이는 신청 폭증으로 인한 행정처리 지연에 대비해 신속한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행정인력비와 사무관리비 등을 편성한 것임 (사업 개요 참조).
- 다만 기간제 근로 인력 지원 비용의 세부 산출내역에 있어, ‘특수고용,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노동자 지원 사업’ 과 보수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하고 통일된 산출근거가 필요함.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특수고용,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노동자 지원
기간제 근로 인력 지원 $2,496,000\text{원} * 5\text{명} * 25\text{개구} * 2\text{개월}$ = 624,000천원 ※재난긴급생활비 기간제 인력 보수와 같음	기간제 근로 인력 지원 $2,700,000\text{원} * 57\text{명} * 1\text{개월}$ = 154,000천원 ※ 57명 : 2명*25개구+본청 7명

- 서울시는 4대보험료의 자치구 부담여부에 따라 달리 편성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사업 내용에 따라 자치구의 보험료 부담 비율이 각기 다른 것은 온당한 조치로 보기 어려움.
- 이밖에 사업 공고 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특수고용,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 ‘코로나19 위기 도시제조업 긴급사업비 지원’ 등 중복수급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함께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3. 주요 감액 사업 검토

가.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활성화 지원 (사업별설명서 5쪽)

-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노동상담·교육·노동조합 설립 지원 등 노동복지 종합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5천 5백만원 감소한 69억 8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활성화 지원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6,981	7,536	△555
사 무 관 리 비	7	7	0
민 간 위 탁 금	1,510	1,510	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464	6,019	△555

- 현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는 권역별 시립센터 2개소와 자치구별 16개소 등 총 18개소가 조성되었음.

<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권역별 조성 현황 >

구 분	계	도심권	동남권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계	25	3	4	8	3	7

구 분		계	도심권	동남권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설치	시립	2	1	1	0	0	0
			종로	송파			
	구립	16	1	1	6	3	5
			중구*	강동	노원, 성북, 중랑, 성동, 광진, 도봉*	서대문, 은평, 마포	강서, 양천, 구로, 관악, 영등포*
미설치	7	1	2	2	0	2	
		용산	서초, 강남	강북, 동대문		동작, 금천	

※ 중구, 도봉구, 영등포구 센터는 2019년 선정되어 개소 예정임.

- 감추경된 5억 5천 5백만원은 모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개소·선정이 지연된 자치구 센터의 운영비를 감액한 것임.
 - 2019년 선정된 센터 중 도봉구는 5월, 영등포구는 11월에 각각 개소 예정으로, 미집행될 예정인 1~2분기 보조금 3억 7천만원을 감액함.
 - 또한, 올해 3개소의 신규 센터를 계획했으나, 공모결과 용산구 1개소만 참여해 2개소분의 1분기 보조금 1억 8천 5백만원을 감액함.
- 서울시는 2021년까지 총 25개의 권역별, 자치구별 센터 구성을 통해 지역밀착형 노동복지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으로, 비정규직과 특고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노동복지 수요를 충족시킨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임.
- 다만 도봉구, 영등포구 센터와 같이 조성 지연에 따라 미집행되는

예산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바, 철저한 계획 수립과 자치구 조성 독려 등을 통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임.

- 한편 서울시는 동북권·서남권 두 곳의 권역별 시립센터의 예산(8억 6천 4백만원)을 추경을 통해 확보하고 하반기 개소할 계획이었으나⁹⁾, 이번 추경에 편성하지 못하게 되어 정상 개소에 어려움이 예상됨.

나. 서울시 강북노동자복지관 확충 (도시개발특별회계, 사업별설명서 23쪽)

- 노동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운영 중인 강북노동자복지관의 이전·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기정예산 중 10억 6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 서울시 강북 노동자복지관 확충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2,410	3,470	△1,060
시 설 비	2,128	3,128	△1,000
감 리 비	274	334	△60
시 설 부 대 비	8	8	0

- 은평구 서울혁신파크 내 위치한 강북노동자복지관은 혁신파크 조성에 따른 계약만료(2014.8.) 이후 마땅한 대체 건물을 찾지 못해 이전 지연을 거듭하였음.

9) 동북권·서남권 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293회 임시회 의결(2020.4.29.)

- 2018년 확정된 이전계획에 따르면, 마포구 아현동의 舊서부수도 사업소 건물을 대상으로, 전층 리모델링과 1개층 증축, 엘리베이터 설치를 통해 지하 1층·지상 5층(2,683.13㎡)의 규모로 확장되며, 9월부터 착공하여 2021년 하반기 완공될 예정임.

< 강북 노동자복지관 확충 전체 사업비 >

(단위 : 천원)

구 분	계	2019년	2020년	2021년
총 사업비	7,439,010	500,000	3,469,505	3,469,505
설 계 비	358,675	358,675	-	-
철 거 비	141,325	141,325	-	-
공 사 비	6,255,712	-	3,127,856	3,127,856
감 리 비	667,810	-	333,905	333,905
시 설 부 대 비	15,488	-	7,744	7,744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면,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공사 시 계약금액의 40%를 선금으로 의무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이번 추경안에서는 올해 지급해야할 공사선금금 24억 1천 만원을 제외한 사업예산을 감액하였음.

▷ 시설비 선금금 : 도금액 5,317,355천원(공사비 6,255,712천원×0.85) ×0.4
= 2,126,942천원

※ 시설비 도금액은, 공사비에서 관급자재비(공사비의 15%) 제외

▷ 감리비 선금금 : 도금액 667,810천원 ×0.4 = 267,124천원

- 그러나 해당 건물은 2021년 11월 준공 예정으로, 이번 추경을 통해 감액하는 시설비와 감리비는 그대로 내년 예산에 재편성해 공사비로 지출되어야 함.
-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자금확보가 긴급히 필요한 상황이지만, 명확히 집행가능한 금액까지도 삭감하고 이를 다시 다음연도 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효율적인 예산 운용방식으로 보기 어려움.

다.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사업별설명서 31쪽)

- 지역예술가의 재능을 활용해 소상공인 가게의 디자인을 개선함으로써, 새로운 지역 일자리모델을 창출하고 소상공인가게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30억원에서 9억원을 감액하였음.

<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2,100	3,000	△900
사 무 관 리 비	10,000	10,000	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090	2,990	△900

- 2019년 추경예산으로 시작한 이 사업¹⁰⁾은 코로나19로 인해 상반기 사업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연내 집행가능한 수준으로 규모를 축소

10) 이 사업은 사업수행업체 선정 → 지원대상 가게 및 예술가 선정 → 참여자 간 매칭 → 프로젝트 진행 순으로 추진되며, 2019년 13개 자치구에 청년예술가 191명, 소상공인가게 504개소가 참여하였음.

하고 사업을 재조정하여 예산을 감액한 것임.

- 기존 15개 자치구 지원 계획(소상공인가게 600개소, 예술가 270명)에서, 12개 자치구 지원(소상공인가게 480개소, 예술가 180명)으로 변경됨.
- 코로나19와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정상 추진이 어려워진 상황은 인정되나, 본 예산이 전년대비 대폭 증가(176%, 13억원)하면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사업설계가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본예산 (A)	2019년 (B)	증감 (A-B)
계	3,000	1,700	1,300

라.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사업별설명서 38쪽)

- 유형별 특성화시장 육성을 통해 전통시장·상점가의 활성화를 제고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2천 6백만원이 감소한 19억 1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913	2,139	△226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에서 주관하는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은 지역선도형과 문화관광형 특화시장을 육성하는 ‘희망사업프로젝트’와 특성화시장 추진을 위한 기반조성 지원인 ‘특성화첫걸음시장’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음.

<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세부내용 >

사업명	사업 내용	총 사업비	기간
희망사업 프로젝트	(지역선도형) 지역을 대표하는 특성화 우수시장을 선별하여 지역 거점시장 및 전통시장 롤모델 육성을 위한 프로젝트 지원	20억원 內	2년
	(문화관광형) 지역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시장 고유의 특징점을 집중 육성하는 상인 중심의 프로젝트 지원	10억원 內	
특성화 첫걸음시장	(첫걸음기반조성) 기초역량 보유시장 대상으로 기반조성을 지원하여 향후 특성화시장으로 육성유도	3억원 內	1년
	(첫걸음권설팅) 기초역량 미비시장 대상으로 전문가를 활용하여 상인조직 기초역량 배양 등 지원	15백원 內	6개월

- 이번 추경안은 올해 선정 예정이던 용문전통시장이 사업평가 결과 지원대상에서 제외됨¹¹⁾에 따라, 해당 시장에 대한 매칭 시비를 감액하는 것임.
 - 2019년 특성화첫걸음시장(연서시장, 화곡중앙골목시장, 용문전통시장) 중 용문전통시장을 제외한 두 곳만이 문화관광형 도약형 시장으로 선정됨.

11) 2020.2.4. 최종선정

- 중기부가 선정하는 도약형 시장은 총 8개소로, 고른 지역별 분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당 최대 2개소까지 선정하는데 따른 것임.
- 서울시는 2020년 최종 선정된 15개 시장을 지원할 예정으로 세부 현황은 다음과 같음.

< 2020년 지원 예정 시장 현황 >

구 분	사 업 명	연차	개소	시 장 명
합 계			15	-
계속사업	문화관광형시장	2년차	6	뚝섬역 상점가, 화곡본동, 고척근린, 동부골목, 방학동도깨비, 성대전통
도약선정 (’19년 첫걸음 →)	문화관광형시장	1년차	2	연서, 화곡중앙골목
’20년 신규선정	문화관광형시장	1년차	4	구로, 남성사계, 정릉, 신영
	첫걸음 기반조성	1년차	3	관악신사, 금남, 삼익패션타운

- 중기부의 사업 선정 제외로 발생한 불용예산에 대한 감액은 보다 시급한 추경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운용 방식으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첫걸음 기반조성사업으로 선정된 전통시장이 이후, 도약하지 못하고 정체되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맞춤형 특성화시장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됨.

마. 소상공인 결제편의 제공사업

(폐지, 사업별설명서 43쪽)

- 외국인 관광객이 다수 방문하는 전통시장에 간편결제시스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 추경안을 통해 전액을 감액하여 사업을 폐지하게 되었음.

< 소상공인 결제편의 제공사업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민간경상사업보조	0	500	△500

- 당초 서울시는 중구 남대문시장 4천여개 점포에 간편결제 단말기¹²⁾ 설치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었음.
-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관광객 급감으로 외국인의 간편결제 이용실적이 미미할 뿐만 아니라, 외국환 거래 시 발생하는 높은 이용 수수료로 인한 상인들의 반대여론이 제기됨에 따라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였음.
- 이 사업은 2020년 신규 편성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방침서나 계획서가 전무한 상태에서 사업 폐지를 결정하고 있어, 당초 사업 수행에 대한 의지가 없었던 것은 아닌지 의문임.

12) 중국인관광객을 위한 위챗페이 알리페이 등의 결제시스템을 포함한 단말기 지원 계획

바. 코로나19로 취소된 국제 행사 예산 감액

- 서울형 좋은 일자리 모델 확산 프로젝트 (사업별설명서 15쪽)
- 사회적경제 인식 제고 및 성과관리 (사업별설명서 46쪽)

-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Pandemic)으로 개최가 어려워진 국제행사에 대한 예산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임.
- ‘서울형 좋은 일자리 모델 확산 프로젝트’는 좋은 일자리 도시협의체(DWCN)를 운영하고 총회와 국제포럼을 개최하는 사업으로, 2020년 기정예산 3억 7천만원에서 2억 2천만원을 감추경하였음.

< 서울형 좋은 일자리 모델 확산 프로젝트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150	370	△220
사 무 관 리 비	100	100	0
행 사 운 영 비	50	270	△220

- 감액된 행사운영비는 ‘좋은 일자리 도시 국제포럼¹³⁾’ 개최 예산으로, 행사를 취소(△2억 7천만원)하고, 온라인 플랫폼 등을 활용한 영상회의와 영상제작 배포로 도시협의체 총회를 대체(5천만원)하게 되었음.

13) 좋은 일자리 도시 국제포럼은 다수의 해외 도시 및 기관이 참석하여, 일의 불평등과 유니온시티(2018),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일(2019) 등 국제도시 간 노동정책을 공유하고 협력하는 행사로, 포럼을 통해 전 세계 노동자가 체감할 수 있는 도시노동모델 개발·확산을 위한 ‘좋은 일자리 도시 협의체’를 창립했음.

- ‘사회적경제 인식 제고 및 성과관리’ 사업은 사회적경제 홍보, 사회적경제 한마당 행사 개최, 아시아 청년 사회혁신가 국제포럼 지원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기정예산 5억 7천만원 중 2억 5천만원 감액하였음.

< 사회적경제 인식 제고 및 성과관리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320	570	△250
사무관리비	160	310	△150
행사운영비	160	160	0
민간행사사업보조	0	100	△100

- 코로나19의 여파로 대면 회의가 축소되고 온라인으로 대체됨에 따라 1억 5천만원의 사무관리비가 감액되었고, ‘아시아 청년 사회혁신가 국제포럼¹⁴⁾’ 주최기관(한겨레)의 행사 취소로 1억원의 보조금 전액을 삭감하였음.
-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국가간 이동이 극도로 위축됨에 따라 해외 연사나 외빈을 초청하는 국제행사의 취소가 이어지고 있어, 불용이 예상되는 관련 예산을 감추경하여 피해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한 예산운영으로 판단됨.

14) 아시아 청년 사회혁신가 국제포럼은 국내·외 청년사회혁신가를 초청하여, 주거(2015)·마을(2016), 교육(2017), 젠더(2018), 플라스틱(2019) 등 아시아 내 주요한 사회적 변화에 대한 청년들의 사회적경제 활동을 소개하고, 다양한 만남을 통한 새로운 협력의 가능성을 확장하는 행사임.

- 그러나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행사 중 하반기 추진 예정인 일부행사는 진행하고 일부는 취소하고 있는 상황으로, 국내외 행사 추진 여부에 대한 일정한 기준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노동민생정책관 추진 행사 내역 >

구 분	행 사 명	행사시기	추진여부
노동정책담당관	노사민정 아카데미	6, 9, 11월	추진
	좋은일자리 국제도시 포럼	11.10.~11.	취소
공정경제담당관	경제민주화 포럼	11월	추진
사회적경제담당관	사회적경제한마당	9월 이후	추진
	아시아 청년 사회 혁신가 국제포럼	9월	취소
	서울 대표 사회적경제 마켓	10월	추진
제로페이담당관	모바일 페이먼트 컨퍼런스	하반기	취소

담당 조사관	연락처
김나래	02-2180-8057

[참고자료]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제한 업종

표준산업분류	지원제한 업종
46107 중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46416 및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56211	일반 유흥주점업
56212	무도 유흥주점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91	무도장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68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 제외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단,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기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업종으로 서울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한 업종